

쌍용양회, 신소재분야 집중 육성(96. 9. 3)

쌍용양회는 앞으로 5년간 총 1천억원을 추가투자하여 파인세라믹 등 신소재 개발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쌍용양회는 신소재 분야를 기존 시멘트 레미콘을 대신할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키 위해 '신소재 부문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오는 2천년까지 절삭공구 등 구조 세라믹과 오디오, 모니터용 자석류인 페라이트마그네트 생산설비 증설에 총 1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포항공장은 현재 연간 1만7천톤인 생산능력을 2배 수준인 연산 3만5천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쌍용양회, 동해에 석회석 새 광산 준공(96. 9. 5)

쌍용양회는 강원도 동해공장에서 앞으로 3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석회석광산을 추가로 개발, 김일동삼척시장과 우덕창쌍용양회사장 신영철 쌍용자원개발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4일 준공식을 가졌다. 신광산개발에 총 1천2백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90년부터 6년간공사를 벌여온 끝에 준공된 동해 신광산의 석회석 매장량은 4억t 규모에 달해 원료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신광산에서 동해공장까지 총 16km에 달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설치, 채굴한 석회석을 시간당 3천6백t씩 운반함으로써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됐다.

한라시멘트, 21세기 "비전 2005 선포식" 가져(96. 9. 13)

한라시멘트는 지난 9월 13일 강원도 강릉 실내체육관에서 "비전 2005 선포식"을 갖고 2005년까지 연평균 15%의 성장, 매출목표 1조5천억원 달성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선포했다. 이에따라 기존의 시멘트, 건설, 레미콘 등 3개 사업구조를 확대하고 시멘트 2차제품, 엔지니어링, 경영 및 교육컨설팅,

특수시멘트 등의 분야에 진출하는 한편 해외합작 사업도 대폭 강화, 이를 위해 핵심역량 구축등 4단계의 기본전략과 인재, 정보, 기술, 조직등 10대 핵심추진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요업기술원 '수중재료 분리방지제' 개발(96. 9. 18)

중소기업청 국립기술품질원 요업기술원(원장 장기중)은 9월 18일 콘크리트 타설시 시멘트와 골재가 물에 의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중재료 분리방지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수중타설 작업시 콘크리트의 시멘트와 골재가 분리돼 강도저하에 따른 부실공사와 수질오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를 막고 해양공사의 안전도를 높이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분리방지제가 일본에서 정한 설계·시공규정보다 50%이상 압축강도가 높고 수중강도가 공기중 강도의 95%에 이르는 등 선진국의 기준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다고 기술원은 설명했다.

한라그룹, 사우디에 시멘트공장 발전설비 가동(96. 9. 30)

한라그룹은 지난 94년 사우디 아라비아 SPCC사로부터 수주한 현지 비사 시멘트공장(연산 1백35만t 규모)의 정수시설 통수식을 갖고 발전설비가동에 들어갔다고 9월 30일 발표했다. 한라측은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발전설비가 시멘트공장및 부속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10MW급 가스터빈 발전기 4대, 1.5MW급 디젤발전기, 연료공급기 등으로 구성됐고 또 정수시설은 하루 1천8백입방 미터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수원대, 페타이어로 만든 고무콘크리트 개발 성공(96. 10. 17)

수원대 홍영근(고분자공학과)-정경호 교수팀은 10월 17일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2배이상 강하

면서도 값싸고 가벼운 고속철도용 고무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콘크리트가 페타이어의 고무를 직경 20미크론이하의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 석회석을 대체한 것이 기존 콘크리트와 다르며 이 콘크리트가 평방cm당 1t이상의 힘을 견디면서도 1입방cm당 1.8g에 불과해 고속철도 침목처럼 하중을 많이 받는 구조물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일반철도 침목용 시멘트 콘크리트(강도 평방cm당 4백50kg, 무게 입방cm당 2.8g)보다 생산단가가 입방m당 10만원가량으로 기존 콘크리트보다 싸고 탄성도 뛰어나 균열이 잘 가지 않고 해수등에도 잘씩지 않는 이 콘크리트는 이미 9월 3일자로 미국 특허를 획득했으며 국내에서는 연간 5백만개 이상의 페타이어가 버려지고 있어 이를 고무 콘크리트로 활용할 경우 자원재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왕겨를 이용, 콘크리트 골재 활용
(96. 10. 18)

충남대 성찬용교수팀(농공학과)은 10월 18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를 통해 '왕겨재 콘크리트 개발'이란 논문을 통해 왕겨 재를 기존 콘크리트에 첨가할 경우 무게는 줄어든 반면 강도는 8%까지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왕겨 산출량이 연110만톤에 달하는데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골재로 활용할 경우 환경보존은 물론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중공업, 이집트에 시멘트공장 건설계약
(96. 10. 19)

박운서 한중사장과 이집트 엘스웨디그룹의 헤랄 짜택 엘스웨디회장이 10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바에서 연산 2백 10만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건설을 위한 합작투자 회사를 설립키로 계약을 맺었다.

카이로에서 1백20 떨어진 베니셰프지역에 일괄도

급방식으로 건설될 이 공장은 단일공장으로서 이 집트 최대규모로 공사대금은 3억달러이며 오는 97년6월께 착공하여 2000년 5월경 준공 예정이다.

건식 레미콘공법 국내 첫 도입
(96. 10. 22)

시멘트와 골재, 모래만을 섞은 혼합물을 건설현장으로 가져가 현장에서 물을 타서 쓰는 건식레미콘 공법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다. 10월22일 건설교통부는 미국 등 건설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한 건식레미콘 공법의 국내건설현장 도입과 이를 위한 활용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한 이를 위해 압축강도시험 등 건식레미콘에 대한 각종 시험을 한 결과 건식레미콘이 품질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통산부 16개 기업에 환경경영체제 시범인증 부여(96. 10. 23)

통상산업부는 10월 23일 동양시멘트 삼척·북평공장, 쌍용양회 영월공장 등 국내 16개 기업에 대해 환경경영체제(ISO 14000) 시범인증서를 부여했다.

이번에 시범인증을 받은 기업은 통산부가 5월 1일부터 실시한 시범인증사업 결과 국제표준규격에 적합하게 환경경영체제를 구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로 한솔제지, 유한김벌리 대전공장, 한솔제지 전주공장 등이다.

한라그룹, 인도네시아 아체주에 시멘트공장 건설 (96. 11. 5)

한라그룹이 말레이시아 타드만소리그룹 인도네시아 아체주 정부 등과 3개국 합작으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에 연산 1백20만 규모의 시멘트공장을 건설한다. 11월 4일 한라그룹의 정인영 그룹회장이 말레이시아 타드만소리그룹의 통구만소루 사장과 만나 합작건설을 위한 의향서를 교환하였으

며 이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수주, 97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생산된 시멘트는 인도네시아는 물론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 각국으로 수출될 것이다. 한편 한라그룹은 말레이시아의 네게리셀발란시멘트공업(주)으로부터 연산 1백20만 규모의 시멘트공장을 턴키베이스로 수주, 건설중에 있는 등 동남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중, 말련에 시멘트설비 수주
(96. 11. 7)

현대중공업(대표 金正國)은 11월 7일 말레이시아의 흥큐사로부터 연산 80만 규모의 시멘트 생산설비공사를 1억3천만달러에 수주했다고 발표하였다.

한라그룹, 오만에 시멘트 합작공장 건설기로 계약(96. 11. 9)

11월 8일, 한라그룹 본사에서는 정인영 회장과 오만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사의 바완 회장 사이에 연산 3백50만 규모의 시멘트공장을 건설기로 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함으로써 중동지역의 오만에 시멘트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한라그룹은 이에 따라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사와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업타당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공장입지 조사팀을 오만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삼성정밀화학, 혼합제 HPMC 개발
(96. 11. 9)

삼성정밀화학이 국내 처음으로 농·의약,시멘트, 화학제품의 혼합제로 활용되는 첨단 정밀화학제품 메셀로스(HPMC)제조기술과 열 콘덴서인 65도 PCM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메셀로스 제조기술 개발성과는 셀룰로오스를 원료로 활용하는 고기술로 미 다우,일 신네츠,독 울프사에 이어 4번째이며 65도 PCM제조기술은 세계최초이다.

폐석활용 건자재 개발
(96. 11. 11)

강원대 석재복합 신소재 제품연구센터(소장 朴濟善)는 최근 폐석에 고분자소재를 섞어 다양한 건축및 토목자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광산지역에서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일으키는 애물단지인 석탄폐석을 이용해 개발한 고분자 복합소재중 연간 4만개 이상 소요되는 통신·가스·전력용 지하맨홀의 경우 기존의 시멘트 콘크리트(무게 6t·상하 두께 20~25cm·수명 10년내외)에 비해 무게 3분의1(2t),두께 3분의1~2분의1,수명은 6배 이상(60년이상)이나 된다.

쌍용양회, 특수시멘트 시판
(96. 11. 13)

쌍용양회는 작년부터 쌍용중앙연구소와 본사 건자재 개발팀이 공동으로 그라우트재 개발에 착수,국내 처음으로 용도별 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 강도가 세고 유동성이 높아 원자력발전소나 교량건설에 주로 쓰이는 특수시멘트 그라우트재를 용도별로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고 11월 12일 발표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특수시멘트 그라우트재는 '바스콘'이란 상품명으로 시판될 예정으로 이번엔 나온 바스콘700의 경우 기존의 그라우트재보다 압축강도가 1.3배 세고 유동성도 좋아 원자력발전소나 고속철도용으로 적합하며 바스콘SR은 염분과 황산에 강해 해안지방의 기계설비 기초에 적당하다.

동양시멘트, 경남 함안의 Dry Mortar 시멘트공장 가동(96. 11. 15)

동양시멘트는 11월 15일 경남 함안에서 연산 20만 규모의 드라이 모르타르 시멘트 공장을 준공,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동양시멘트는 현재 가동중인 부산공장, 군산공장과 더불어 연산 50만 규모의 드라이모르타르형 시멘트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